

Bayer, 비용절감 구조개혁 박차

2005년까지 연간 16억달러 절감 ... 공장폐쇄 · 제휴 · 매각 적극추진

2001년 매출액이 급속하게 감소한 Bayer의 구조조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Bayer의 Manfred Schneider 사장은 2005년까지 2000년에 비해 연평균 18억유로(16억달러)를 절감하기 위해 감원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ayer은 2001년 영업이익이 51% 감소한 16억유로, 매출액은 2% 감소한 303억유로, 당기순이익은 47% 감소한 9억6500만유로를 기록했다. 4/4분기 경영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ayer은 2001년 Baycol/Lipobay 콜레스테롤 저하약품 사업 철회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Kogenage 플랜트의 생산문제로 Health Care 사업부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각각 6억2100만유로, 5억4200만유로 감소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Polymer와 Chemicals 사업도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Bayer은 2002년 자회사 매각으로 순이익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ayer은 향료 및 방향제 사업부 Haarmann & Reimer, 매출이 4억유로인 주택용 살충제 사업 등 15억유로에 이르는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Bayer은 부분적인 제휴와 합작을 통해 2005년까지 Health Care 사업부의 연간 코스트를 6억6000만유로 절감할 계획이다. Health Care 사업부는 2001년 영업이익이 48% 줄어든 7억7100만유로에 불과했고, 매출액도 98억유로로 2% 감소했다. Kogenate 생산상의 하자도 해결돼 2002년에는 정상 가동될 예정이다.

Bayer의 Chemicals 사업부는 2001년 영업이익이 27% 감소한 2억7100만유로에 머문 반면, 매출은 10% 증가한 37억유로를 기록했다. Bayer은 다른 기업과 제휴해 2005년까지 Chemicals 사업부의 연간 코스트를 2억유로 절감할 계획이다.

Bayer은 시장환경이 취약해짐에 따라 벨기에 Rieme 소재 Polyether Polyol 공장도 2002년 말 폐쇄할 계획이다.

Bayer은 폴리머 사업부도 부진해 2001년 매출액이 108억유로로 정체됐고, 영업이익은 4억3400만유로로 60% 감소했다. 이에 따라 Polymer 사업부도 코스트 절감을 시도해 2005년까지 연간 코스트를 7억3000만유로를 절감할 계획이다.

반면, Bayer의 곡물보호 사업부는 2001년 영업이익이 12% 증가한 6억2500만유로, 매출은 7% 증가해 37억유로를 기록했다.

Bayer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4개의 독립법인을 거느리는 홀딩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계획인데, 생명공학 부문을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Bayer은 자회사들의 효율적인 통합과 체계적인 결점보완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5/ 06 >